광양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박차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수소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수소배관·수소충전소 보급, 수소연료전지사업 유치

광양시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광양항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으로 이뤄졌다.

광양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도시 내 주거·교통 분야 등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양시는 미래 수소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다수의 민간 기업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접촉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 등을 논의·발굴했고 최근엔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관계부서를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항만구역 내 수소배관·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과 구축, 모빌리티 분야 실증,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수소산업 육성 등이 있다.

광양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구역 내 모빌리티 분야 실증사업 추진과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양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정구영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소경제 마중물이 될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해부터 준비했다"며 "다수의 민간 기업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접촉해 사업 아이템 등을 논의·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탐방객들이 짚라인을 체험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제암산휴양림 모험시설 운영 재개

곰썰매·전동휠·짚라인 등 다양

보성군이 '놀이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모험시설 운영을 재개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모험시설은 곰썰매와 전동휠, 어드벤처, 짚라인 등이다.

곰썰매와 전동휠은 오전에만 체험할 수 있고, 어드벤처와 짚라인은 오후 프로그램만 운영된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3일전까지 가능하며 곰썰매만 당일 현장상황을 고려 후 개인 고객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매표소 안내를 통해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모험시설인 곰썰매는 출발지 높이 15m, 총 길이 238m 규모로 썰매를 타고 내려가면서 자연을 느끼며 높은 곳에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어 많은 체험객이 찾고 있다. 4~5세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동반 탑승이 가능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모험 시설 이외에도 숲을 체험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이 갖춰져 있다.

160ha 규모의 산림 안에 48개의 숙박시설과 야영장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도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도 제암산자연휴양림의 대표 명소다. 숲 해설 프로그램도 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최고로 사랑받는 산림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붐 조성 '꽃탑 조형물' 설치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이순신광장과 낭만포차 2개소에 '꽃탑 조형물'〈사진〉을 설치했다.

이순신광장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태극라인의 연륙도에 갈매기와 동백꽃을 아름답게 표현해 전 세계의 섬이 화합하는 디자인 꽃탑 조형물을 설치했다.

낭만포차 인근에는 여수시의 365개 섬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밝히는 등대 조형물을 설치하고 휴게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꽃을 활용한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붐 조성과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디자인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계절별로 25종 이상, 연간 14만본의 우량 꽃묘를 생산하고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 등에 배치해 아름답고 정감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GS칼텍스, 소액기부로 '천원의 행복' 실천

여수공장 임직원 이틀간 행사
소액기부 활성화 시스템 운영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여수공장 구내식당에서 소액기부 운동인 '천원의 행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과제로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한 '소액기부 활성화 시스템'을 개발해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누구나 기부 배너에 본인의 사원증을 태그하면 1회당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

사원증으로 기부한 금액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다. 구내식당 현장 태그 방법 외에 사내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언제든 기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

GS칼텍스는 지역 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후원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연을 사내 공지 후 매월 25일 구내식당 및 전산 접속을 통해 임직원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임직원 기부로 모금된 총금액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 그랜트로 조성해 후원 대상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을 비롯한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점심식사 후 구내식장 출구에 비치된 '소액기부 시스템'에 사원증을 태그하며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기부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고당도 꿀수박 본격 출하

40여 농가 1000 t 생산
다음달 수박알리기 체험행사

"구례에서 나는 꿀수박 맛보세요."

구례군은 문척면 섬진강변 던데들에서 재배하는 꿀 수박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맑고 깨끗한 섬진강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구례수박은 5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해 6월말까지 생산된다.

구례수박은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타 지역에 비해 토양 속 게르마늄 함량이 5배가량 높고 청정해 건강하고 깨끗한 전국 최고의 수박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구례에서는 친환경재배 13농가를 포함한 40여 농가가 20ha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1000 t, 18억원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1농가당 평균 4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수박은 각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수박과는 다르게 줄무늬가 없어 검정색을 띄며 껍질이 얇고 향과 당도가 높은 흑수박을 도입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구례 문척면에서 생산되는 꿀수박의 맛을 알리기 위해 6월 11~1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례체험여행협동조합센터(문척면 안지길 25-29)에서 마을주민 주도로 문척수박 알리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품 흑수박 시식과 현장판매와 함께 구례특산품,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민속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다.

구례군 문척면의 한 농가에서 수박 수확이 한창이다. 〈구례군 제공〉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